

유란시아서

<< [제 174 편](#) | [부분](#) | [내용](#) | [제 176 편](#) >>

제 175 편

마지막 성전 강연

175:0.1 (1905.1) 이 화요일에 오후 2시가 조금 지나서, **예수**는 열한 사도, **아리마대 요셉**, **그리스인 30명**, 그리고 어떤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도착했고, 신성한 건물의 마당 안에서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이 강연은 **유대** 민족에 대한 그의 마지막 호소요, 맹렬히 반대하는 적과 그를 죽이려 하는 자 — 서기관 · **바리새인** · **사두개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으뜸 권력자 — 들을 마지막으로 고발하는 말씀이 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아침 나절 내내, 여러 집단이 **예수**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175:0.2 (1905.2) 주가 말씀을 시작하자, 성전 마당은 조용하고 질서가 있었다. 환전상과 상인들은 **예수**와 흥분한 군중이 그 전날 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감히 다시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는 부드러운 눈길로 이 청중을 내려다보았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과 **유대인**의 편협한 권력자들에 대한 그의 마지막 비난과 아울러, 인류에게 작별을 알리는 대중 연설, 자비의 연설을 곧 들을 것이었다.

1. 강연

175:1.1 (1905.3) “**아버지**가 사람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면서,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많은 사람이 빛을 보고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갔느니라. 이 가르침과 전도와 연관하여, **아버지**는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였도다. 허다한 아픈 자와 병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진실의 선포와 병의 치유는 빛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이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였도다.

175:1.2 (1905.4)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일치되는 모든 방법으로, 나와 내 사도들은 우리 동포와 평화롭게 살려고,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전통이 요구하는 온당한 조건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였느니라. 우리는 끈질기게 평화를 찾았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하늘의 빛을 물리침으로 저희는 잘못과 어두움의 편을 드느니라. 빛과 어두움 사이, 삶과 죽음 사이, 진실과 잘못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도다.

175:1.3 (1905.5) “너희 가운데 여럿이 감히 내 가르침을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식하는 기쁨과 해방을 이미 얻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온 **유대** 민족에게, 아니 이제 나의 파멸을 추구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내밀었음을 너희가 증언하리라. 지금도 내 **아버지**는 이 눈먼 선생과 이 위선하는 지도자들이 그에게 호소하고 자비를 받고자 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려 하시느니라. 이 민족이 하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의 아들을** 환영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 늦지 아니하니라.

175:1.4 (1906.1) “내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민족을 자비롭게 대하셨느니라. 대대로 우리는 저희를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었거늘, 대대로 저희는 하늘이 보낸 이 선생들을 죽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외고집인 너희의 높은 사제(司祭)와 완고한 권력자들이 바로 이 일을 계속 하느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게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제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는도다.

175:1.5 (1906.2)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께 호소하고 구원을 추구할 기회가 있는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자비의 손을 뻗은 채로 계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잔을 일단 채웠을 때, 그리고 한 번 너희가 마침내 내 **아버지**의 자비를 물리치고 나서, 이 나라는 스스로 의논하도록 버려지겠고 급속히 치욕스러운 종말에 이르리라. 이 민족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을 아는 종족의 영적 영광을 보여주라고 부름받았거늘, 너희는 신성한 특권을 실현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지도자들이 온 인류에게, 어느 시대에도 주는 **하나님**의 선물 —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계시 — 를 마침내 물리칠 지경에 있으므로, 저희는 만세에 걸쳐 최대의 어리석은 짓을 바야흐로 저지르려 하는도다.

175:1.6 (1906.3)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리 계시하는 것을 일단 물리치고 나서, 하늘나라는 다른 민족들에게, 계시를 기뻐하고 즐거이 받을 사람들에게 주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엄숙히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영원한 진실의 기수(旗手)이자 신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의 자리를 바야흐로 잃으려 하느니라. 앞으로 나와서 뉘우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안전과 구원을 얻으려는 뜻을 알릴 마지막 기회를 내가 바로 지금 너희에게 내밀고 있노라.

175:1.7 (1906.4) “내 **아버지**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랫동안 일하셨고, 너희 사이에 살고 몸소 너희에게 길을 보이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많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니 이방인까지도 하늘나라 복음을 믿었으되, 먼저 앞으로 나서서 하늘의 빛을 받아야 할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이 계시되는 것 —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드러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진 것 — 을 믿기를 완고하게 마다해 왔느니라.

175:1.8 (1906.5) “오늘 오후에는 내 사도들이 여기 너희 앞에 말없이 서 있으나, 구원을 받으라 부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나라와 연합하라 재촉하는 사도들의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너희가 곧 들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이스라엘**과 그 권력자들에게 구출과 구원을 내밀었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이들, 내 제자와 하늘나라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저희 옆에 보이지 않는 사자(使者)들을 내가 이제 부르노라.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비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진실의 사자들을 물리치는가 너희 모두가 보느니라.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타이르노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며, 따라서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최고**자들이 마침내 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이 권력자들의 자리를 파괴할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이 장로들과 협조하라고 내가 명하노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는 저희의 계획에 함께 단결하라고 요구되지 않으나 **이스라엘**의 평화와 관계된 모든 일에 너희는 저희에게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 모든 일에 저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행하고 율법의 기본을 지키되, 저희의 악한 일을 본따지 말라. 이것이 이 권력자들의 죄임을 기억하라: 저희는

좋은 것을 말해도 행하지는 않느니라. 이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 지기에 괴로운 짐을 너희 어깨에 얹으며, 너희가 이 무거운 짐 지는 것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음을 너희가 잘 아는도다. 저희는 너희를 예식으로 억압하였고, 전통으로 너희를 종으로 만들었도다.

175:1.9 (1907.1) “그 위에, 자기 중심인 이 권력자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좋은 일하기를 기뻐하느니라. 저희는 성구함(聖句函)을 넓히고 공식 예복의 테두리를 크게 만드느니라. 저희는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몹시 좋아하고 회당에서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며, 시장에서 칭찬하는 인사 듣기를 탐내고 모든 사람이 저희를 랍비라 부르기를 원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이 온갖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서, 저희는 몰래 과부의 집들을 붙잡고, 신성한 성전의 예배로부터 이득을 챙기느니라. 이 위선자들은 대중 앞에서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고 동료들의 눈을 끌려고 자선금을 내는도다.

175:1.10 (1907.2) “너희의 권력자들을 공경하고 너희의 선생들을 존경해야 하되, 너희는 어떤 사람도 영적 의미에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니, 너희의 **아버지**인 분, 아니 **하나님**이 계심이라.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동포를 부리려 해도 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너희를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너희가 분명히 낮아지려니와,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나 분명히 높임을 받으리라. 날마다 너희 생활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총명하게 너희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라.

175:1.11 (1907.3)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지금도 나를 죽이기를 구하는 이 주사제와 권력자들에게 나는 아무런 적의(敵意)를 품지 아니하고, 내

가르침을 물리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악의를 품지
않노라.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몰래 믿음을 내가 알고, 내 때가 올 때
하늘나라에 충성함을 너희가 드러내놓고 고백할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의 랍비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공언하면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오는 자를 주제넘게 물리치고 죽이려 하거늘, 어찌
저희가 자신을 정당화하리오?

175:1.12 (1907.4)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성실한 사람들이 어찌다 너희가 가르치는 길에서 학문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여 너희는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닫으려
하는도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면서 동시에 모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구나. 너희는
구원의 문 앞에 등지고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과
싸우는도다.

175:1.13 (1907.5)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너희는
위선자로다! 개종한 사람 하나를 얻으려고 정말로 땅과 바다를
둘러싸면서, 성공하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자식으로 있던 형편보다 두
배나 나빠지게 만들 때까지 너희가 만족하지 않음이라.”

175:1.14 (1907.6) “너희 주사제와 권력자들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너희는
가난한 자의 재산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에게 **모세**가
예정했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는도다. 자비를 베풀려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다가오는 세상에서 자비를 바랄 수 있느냐?

175:1.15 (1907.7) “너희의 거짓 선생, 눈먼 안내자들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소경이 소경을 이끌 때 한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저희
들이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리라.

175:1.16 (1907.8) “서약할 때 모른 채하는 너희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성전으로 서약하면 그 서약을 깨도 좋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金)으로

서약하는 자는 누구나 묶인 채로 남아야 한다고 가르치니 너희는 사기꾼이라. 너희는 모두 바보요 소경이라. 정직하지 못하면서 너희는 일관성도 없으니, 왜냐하면 금과 그 금을 성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성전,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사람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되, 사람이 제단에 놓여 있는 헌물로 맹세하면 그를 빛진 자로 붙잡을지라 너희가 또한 가르치는구나. 다시 너희는 눈이 멀어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니, 헌물과 그 헌물을 성스럽게 만든 제단,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너희가 어찌 그런 위선과 속임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175:1.17 (1908.1)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박하 · 아니스 · 쿠민을 십일조로 드리면서, 율법에서 더 무거운 문제 — 믿음과 자비와 심판 — 을 무시하는 모든 다른 위선자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너희는 하나를 해야 하고 다른 하나를 하지 않은 채로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는 참으로 눈먼 안내자요, 병어리 선생이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175:1.18 (1908.2) “너희 서기관 · **바리새**인 · 위선자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왜냐하면 너희는 잔과 큰 접시의 겉을 빈틈없이 깨끗이 하되, 속에는 강제로 빼앗고 낭비하고 속이는 더러움이 남아 있음이라.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다음에 넘치는 것이 저절로 겉을 깨끗이 하리라. 버림받은 너희 사악한 자들아! 너희의 혼은 불의(不義)에 깊이 젖어 있고 살인으로 가득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풀이하야 글자대로 따르려고 너희의 종교를 겉으로 연출하느니라.

175:1.19 (1908.3) “진실을 물리치고 자비를 걷어차는 너희 모두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흰 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니라.

과연 그러하니, **하나님**의 충고를 알면서 물리치는 너희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옳바르게 보이되, 속으로 너희 마음은 위선과 불의로 가득하니라.

175:1.20 (1908.4) “민족의 거짓 안내자, 너희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너희는 옛날에 순교한 선지자들에게 저 건너 기념비를 세웠고 한편 저희가 언급한 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도다. 너희는 옳바른 자의 무덤을 꾸미고 너희가 조상 시절에 살았던들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신을 칭찬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를 옳게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언급한 자, **사람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 까닭에,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사악한 아들임을 자신에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가서 너희 비난의 잔을 가득 채우라!

175:1.21 (1908.5) “악의 자손들아, 너희에게 한탄이 있을진저! **요한**은 참으로 너희를 독사의 자식이라 불렀고, 내가 묻노니 **요한**이 너희에게 내린 심판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느냐?

175:1.22 (1908.6) “그러나 지금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자비와 용서를 내밀며, 지금도 영원히 친교하는 사랑의 손을 내미노라.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지혜로운 사람과 선지자들을 보내셨더니, 너희가 더러는 박해하고 더러는 죽였느니라. 다음에 **요한**이 나타나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을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믿은 뒤에 너희가 그를 죽였도다. 이제 너희는 무죄한 피를 더 흘리려고 준비하느니라. 끔직한 청산의 날이 올 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날에 온 땅의 재판관이 이 민족에게 저희가 어떻게 이 하늘 사자들을 물리치고 박해하고 죽였는가 설명하라 요구하리라. 죽음을 당한 첫 선지자로부터 성소(聖所)와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스가랴**의 시절까지, 이 옳바른 피를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한 길을 계속 가면, 바로 이 세대에게 이 책임을 지라 요구될까 하니라.

175:1.23 (1908.7) “아 **예루살렘**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는 돌로 치고 선생들을 죽였도다. 암탉이 날개 밑에 병아리를 모으듯 지금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거늘, 너희는 모이려 하지 않는구나!

175:1.24 (1908.8)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노라.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들었고 너희는 결심하였도다. 내 복음을 믿은 자들은 이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물리치기로 작정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침을 이제 더 구경하지 못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끝났느니라. 보라, 나는 이제 내 아이들과 함께 가고, 너희 집은 황폐한 채로 너희에게 맡겨졌나니라!”

175:1.25 (1908.9) 다음에 주는 추종자들에게 성전을 떠나라고 손짓했다.

2. 개별 유대인의 지위

175:2.1 (1909.1) **유대** 민족의 영적 지도자와 종교 선생들이 한때 **예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가 지독한 죽음을 당하도록 공모(共謀)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별 **유대인**의 지위에, 어떤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동료 필사 **유대인**을 적대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사회 정치 집단으로서, **유대인**들은 **평화의 왕**을 물리친 끔찍한 값을 충분히 치렀다. 그들은 인류의 여러 종족에게 신성한 진실을 전하는, 영적 햇불을 쥔 자가 되기를 그만둔 지 오래지만, 이것은 이 옛적 **유대인**들의 후손 하나하나가,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참을성 없고 자격 없고 편협한 사람들의 박해를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는 되지 않으며, 바로 **예수**는 출생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었다.

175:2.2 (1909.2) 이처럼 불합리하고 **그리스도**답지 않게 현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죄 없고 예의 바른 어떤 개별 **유대인**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일이 많았는데, 그들의 바로 그 조상은 **예수**의 시절에 진심으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있다가 마음을 다하여 믿었던 그 진실을 위하여 물려서지 않고 죽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公言)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의 첫 순교자로서 그렇게 영화롭게 목숨을 바친 **베드로 · 빌립 · 마태**, 그리고 기타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후일의 자손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아니 죽이는 데 탐닉하는 것을 볼 때, 구경하는 하늘 존재들은 얼마나 무섭게 몸서리를 치는가!

175:2.3 (1909.3) 죄 없는 아이들이 선조의 죄,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도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그릇된 행위 때문에 고통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하고 불합리한가! 그리고 적조차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악한 일을 하다니! **예수**의 일생에 관한 이 이야기에, 어떤 동료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물리치고 수치스럽게 죽게 만들려고 공모했는가 묘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니,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의 발표는 어떤 면에서도, 부당한 미움을 정당화하지 않고 정신의 불공평한 태도를 묵인하지도 않는데,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한 아주 많은 사람이 여러 세기 동안 개별 **유대인**에게 그런 미움과 태도를 지녀 왔다.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개별 **유대인**을 **예수**를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박은 죄를 저지른 자로 잘못 대우하기를 그쳐야 한다. **아버지**와 그의 **창조 아들**은 **유대인**을 그치지

않고 사랑해 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요, 구원은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위한 것이다.

3. 운명의 산헤드린 회의

175:3.1 (1909.4) 이 화요일 저녁 8시에 운명의 **산헤드린**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전에 여러 번 **유대** 민족의 이 최고 법정은 비공식으로 **예수**의 죽음을 선포했다. 여러 번 이 존엄한 통치 단체는 그의 일을 멈추게 하기로 결의했지만, 전에는 한 번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를 체포하고 죽게 만들려고 결의한 적이 없었다. 그때 구성된 대로 **산헤드린**이 **예수**와 **나사로**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로 공식으로, 만장 일치로 투표한 것은 서기 30년 4월 4일, 이 화요일에 자정이 되기 바로 전이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겨우 몇 시간 전에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주가 마지막으로 호소한 데 대한 대답이었고, 바로 이 주사제들과 뉘우치지 않는 **사두개인** · **바리새인**들을 **예수**가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발한 데 대하여 그들이 지독하게 분개하는 반응을 표시하였다. **사람의 아들**에게 (재판도 받기 전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그러한 **유대** 민족에게 일찍이 하늘의 자비를 마지막으로 내민 것에 대한 **산헤드린**의 대답이었다.

175:3.2 (1910.1) 이때부터 계속, **유란시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유대인**은 다만 순전히 그들의 인간적 지위에 따라서, 덧없고 짧은 민족의 생명을 마치도록 버려졌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상에 진실의 햇불을 쬔 자로 만들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신의 약속은 취소되었고, **히브리** 국가의 종말이 빨리 다가왔다.

175:3.3 (1910.2) **산헤드린**의 관리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그를 대중 앞에서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몰래, 기왕이면 갑자기, 밤에 그를 붙잡기를 계획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날 (수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러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요일 자정 얼마 전에 **유대인**의 고등 법정 앞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이 **산헤드린** 관리들에게 지시했다.

4. 예루살렘의 상황

175:4.1 (1910.3) 성전에서 **예수**의 마지막 강연이 끝났을 때, 사도들은 다시 한번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랐다. 주가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끔찍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기 전에 **유다**가 성전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열두 사도 모두가 성전에서 하신 **예수**의 마지막 강연의 이 후반을 들었다. **가롯 유다**가 이 작별 연설에서 자비를 내미는 처음 절반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그는 이 작별 연설에서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마지막 제안을 듣지 못했는데, 이는 점심을 같이 먹던 어떤 무리의 **사두개인** 친척 및 친구들과 아직도 의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예수**와 그 동료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었다. **유대인** 지도자와 권력자들에 대한 주의 마지막 고발을 듣는 동안에, **유다**는 복음 운동을 버리고 그 사업 전체에서 손을 씻으려고 마침내, 완전히 작정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열두 사도의 일행 속에 끼어 성전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동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 나라의 종말에 대한 그 운명의 강연을 들었고, 그들과 함께 그 화요일 밤에 **겻세마네** 가까이 새 캠프에 남아 있었다.

175:4.2 (1910.4)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비롭게 호소하다가, 무자비한 비난에 가깝게 갑자기 통렬한 꾸짖음으로 **예수**가 방향을 획 바꾼 것을 들은 군중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리둥절했다. 그날 밤에, **산헤드린**이 **예수**에 대하여 사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주가 **유대**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바깥에 **올리브** 산에서 사도와 어떤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온 **예루살렘**은 꼭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꼭 참고 있던 심각한 논의에 빠졌다: “저희가 **예수**를 어찌할까?”

175:4.3 (1910.5) 하늘나라를 몰래 믿던 저명한 **유대인**이 30명 넘게 **니고데모**의 집에서 만나서, **산헤드린**과 드러내놓고 관계를 끊는 경우에 그들이 무슨 길을 밟을 것인가 토론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주께 충성함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겠다고 합의를 보았다. 그들은 바로 그대로 했다.

175:4.4 (1911.1) 이제 **산헤드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두개인**들은 다음 이유로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였다:

175:4.5 (1911.2) 1. 대중 사이에 그의 인기(人氣)가 늘어난 것은 아마도 **로마** 당국이 개입함으로 **유대인**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그들은 걱정했다.

175:4.6 (1911.3) 2. 성전을 개혁하려는 그의 열심은 바로 그들의 소득에 타격을 주었다.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쳤다.

175:4.7 (1911.4) 3. 그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고 느꼈고, 사람의 형제 정신을 가르치는 교리, 낯설고 새로운 **예수**의 교리가 더욱 퍼짐으로 생기는 결과를 걱정했다.

175:4.8 (1911.5)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사형(死刑)되기를 보고 싶어 하는 다른 동기가 있었다. 다음 이유로 그를 두려워했다:

175:4.9 (1911.6) 1. 그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리새**인이 가진 전통적 위력에 대항해서 말하는 태도를 취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고, 종교 선생인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하여 급진적이라 생각되는 이러한 공격을 퍼붓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분개했다.

175:4.10 (1911.7) 2.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자요, 안식일과 기타 수많은 율법 및 예식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175:4.11 (1911.8) 3.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를 신성 모독죄로 몰았다.

175:4.12 (1911.9) 4. 작별 연설의 결론 부분으로서 성전에서 이날, 지독한 비난이 담긴 마지막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175:4.13 (1911.10) **예수**가 죽어야 한다고 공식으로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가 재판받아야 할 죄목을 작성할 목적으로 대사제 **가야바**의 집에서 이튿날 아침 10시에 모이기로 결정한 뒤에, **산헤드린**은 이 화요일에 거의 자정이 가까워 회의를 마쳤다.

175:4.14 (1911.11) **사두개인들** 중에 한 작은 집단이 **예수**를 암살해서 없애버릴 것을 실제로 제안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과정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

175:4.15 (1911.12) 이것이 이 파란 많은 날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상황이었고, 한편 방대한 집합의 하늘 존재들이 땅에서 이 중대한 장면 위에 떠돌고 있었다. 사랑하는 군주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하려고 초조했지만, 지휘하는 상관들이 실질적으로 제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할 힘이 없었다.